

미래의 아동발달

-아동발달 연구의 과거와 현재 및 미래전망

박 응 임 (안동대학교 가정관리학과)

I. 들어가는 말

새 천년의 시작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자녀를 둔 많은 부모들은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간형은 어떤 형태인지 궁금해한다. 매스컴에서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미래사회의 전망과 더불어 앞으로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간형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아동발달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있어서 이는 대답하기 무척 어려운 질문이라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더 이상 표준적인 인간형, 혹은 규범적 인간형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아동발달 연구가 한 세기를 지나면서 현재는 무엇보다도 아동을 개별적 특성을 지닌 존재로 보고 있다. 그리고 아동이 속한 맥락 속에서 아동을 이해하려는 관점이 팽배해지면서, 맥락의 성질에 따라서 맥락과 조화를 잘 이루는 아동의 특성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전체 인류 아동을 대상으로 일반화될 수 있는 이상적인 아동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 교육현장, 그리고 사회의 곳곳에서 이런 이상적인 아동에 대해 여전히 관심의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동발달 연구 역사 및 이론의 변화와 주요 연구 주제들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앞으로 요구되는 연구의 방향들을 대략적으로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작업들은 아동의 발달 현상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게 하고, 이는 곧 미래의 세기에서 아동은 어떤 모습을 나타낼 것인가를 예측하는데 기본적 토대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II. 아동발달 연구의 과거와 현재

1. 아동발달 연구의 역사 및 이론의 변화

아동이 본격적인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다. 그 이전에도 아동은 존재했었지만 독립된 연령의 범주로 아동기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고학 연구에 의하면 기원전 7세기경에는 아동들이 종교적 제물로 희생되었고, 때로는 건축물의 구조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 묻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많은 사회에서 남성의 성비를 높이기 위해서 여아를 살해하였다. 기원후 4세기에 이르러서도 부모들은 건강하지 못하거나, 자녀수가 많거나, 여자아이인 경우에는 신생아를 죽이곤 하였다. 이후 약 천년의 세월동안 아동들은 쉽게 버려지고 노예로 팔려갔다. 서구 중세 사회에서도 여전히 아동기는 존재하지 않았었다. 이는 아동이 무시되고 희생당하고 멸시 당하며, 애정 없이 아동을 대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기의 독특한 성질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다가 16,7세기에 들어서면서 아동을 성인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 존재로 인정하는 시각들이 중산층과 귀족층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아동에게 노동활동은 적합하지 못하며 성인의 직업세계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로 학교에 보내졌다. 그러나 이는 일부 계층에 제한된 것이었으며 여전히 노동현장에서 아동이 착취당하고 학대받았으며 쉽게 버려져, 이때 파리에서 태어난 영아들 중 25%는 기아로 버려졌다고 한다. 17, 8세기에 들어서 Locke나 Rousseau 등의 철학자들이 아동에 관한 철학적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19세기에 들어 아동기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려는 Darwin과 Preyer 같은 아동 전기 작가들이 등장하면서 아동 그 자체를 관찰 대상으로 삼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Darwin이 「종의 기원」을 통하여 진화주의를 소개하면서 발달(development)이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아동에 관한 연구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시기에 서구의 중류와 상류계층을 중심으로 아동의 세계를 성인의 세계와 분리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아동연구가 활발해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19세기 말 미국에서는 아동 연구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20세기는 아동의 세기라고 할만큼 아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연구가 활발하여 현재에는 아동기는 발달단계에서 독특하고 중요한 시기이며 아동이 지닌 개별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의 역사적 변화와 더불어 아동연구도 19세기말

에서 20세기에 들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다양한 이론적 관점과 연구방법들이 제시되었다. 본격적 아동연구운동은 S. Hall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는 아동연구를 새로운 학문으로 자리잡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학자로서 미국 심리학회의 창립자이고 특히 청소년기 연구에 주요한 업적을 남겼다. 그 이후 지능검사 척도를 최초로 개발한 Binet, 발달에 관한 진보적 이론을 주창한 Baldwin, 신체 및 운동발달의 기준 연령을 제시하면서 성숙이론을 확립시킨 Gesell, 정신분석학적 접근으로 성격 발달을 설명한 Freud 등이 아동연구의 기초를 확립하는데 공헌한 학자들이다.

20세기초와 중반에 접어들면서 아동의 발달적 특성에 대한 주요 이론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행동주의 이론의 창시자인 Watson과 조작적 조건형성의 원리를 소개한 Skinner, 그리고 Freud의 정신분석이론과 이에 인류학의 사상을 접목시켜 발전시킨 Erikson의 심리 사회적 발달이론과 행동주의 이론과 달리 자연적 상태에서의 관찰 학습과 모방 등을 강조한 사회학습이론 등이 그 예이다.

행동주의 및 사회학습이론이 아동 연구와 아동양육 실제에 많이 반영되던 1950, 60년대에 이들 이론들과는 성질을 전혀 달리하는 동물행동학 이론에서 '결정적 시기' '각인'의 개념을 소개하면서 이는 자연스럽게 Bowlby의 애착이론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미 1920년대에 발표되었으나 학자들의 주목을 끌지 못한 Piaget의 인지발달이론이 주요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면서 현재까지 인지발달분야는 정보처리이론의 대두와 함께 활발한 연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후 1970년부터 지난 20~30년간 아동발달의 각 분야별로 소이론 혹은 특수이론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면서 대이론들을 대신하여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소이론들을 통합하려는 시도들도 일어났다. 이와 더불어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변증법적 사고가 인간발달 연구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Riegel(1973)은 유전과 환경 중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는 대신, 발달하는 유기체와 환경과의 관계에 초점을 둔 변증법적 모델을 제안하였다. 동시에 그는 이를 전생애적 발달에 적용하면서 아동기만을 연구하기보다 인간의 전생애로 연구의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변증법적 관점을 이보다 앞서 적용한 학자로 Vigotsky를 들 수 있다. 그는 이미 20세기 초반에 아동을 능동적인 학습자로 보고, 아동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아동의 사고나 행동방식은 그가 속한 문화에서 주위의 의미 있는 타자와의 사회적 대화에서 중요한 요소를 내재화시켜 발달시킨다고 주장함으로써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발달을 이해해야 한다는 관점을 일찍이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주장들과 관심을 통해 아동연구에서 유전 대 환경은 더 이상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는 대신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유전과 환경을 영향을 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변증법적 관점과 전생애적 관점의 영향을 받아 생태학적 접근이 나타나게 되었다. Bronfenbrenner(1979)는 기존의 실험실 연구를 “낮선 상황에서 낯선 사람이 가능한 짧은 시간 내에 아동의 낯선 행동을 연구하는 과학”이라고 비판하면서, 아동연구는 아동이 속한 생태학적 환경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아동을 둘러싼 환경을 다양한 체계수준으로 나누고, 개체와 체계들간의 상호작용과 이들 체계들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였다. 또한 아동은 발달에 있어서 능동적 존재이나 자신이 속한 체계와 상호작용 하면서 영향을 주고받으므로 가능한 많은 체계변인들을 통제하여 연구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로써 아동의 발달을 환경적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은 학문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고 발달을 선형적(linear) 모델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위협받게 되었다. 아동의 타고난 생물학적 조건들이 아동이 속한 문화와 환경의 맥락들 속에서 서로 어떤 식으로 역동적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 발달경로가 달라지며 여기에는 시간의 개념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살아있는 발달현상에 관심을 가지며 이런 분야의 이론과 연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2. 아동발달 연구의 주요 주제들의 변화

1) 안정성(stability)과 가소성(plasticity)

많은 학자들이 아동 초기의 경험은 사회적, 인지적 행동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바뀌어 질 수 없다고 믿었다. Kagan(1976)은 이런 관점을 발달에 대한 “tape recorder model”이라고 언급하면서 모든 경험이 한 번 기록되면 다시 기록하거나 지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후의 다른 많은 연구들에서 초기의 해로운 경험의 영향은 언제나 영원한 것이 아니며 때로는 바뀔 수도 있다는 결과들을 보여주면서 발달에 대한 가소성 개념을 더 지지하게 되었다. 물론 초기의 경험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후의 경험도 역시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행동은 쉽게 변하지만 어떤 행동은 쉽게 변하지 않기도 한다. 따라서 현재에는 발달에 있어서

안정성과 가소성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Bjorklund, & Bjorklund, 1992). 이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현대의 이론들은 인간의 일생을 거쳐 존재하는 상대적 가소성(relative plasticity)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 개념은 발달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제안들을 제공하고 있다. 즉, 발달을 전생애적으로 접근해서 연구해야 하며, 맥락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들을 정당화시킨다. 이는 곧 인지적, 사회적 발달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정책이나 중재프로그램들을 빈곤계층이나 혜택받지 못한 계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계층에 다 적용해야 할 필요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Schneirla와 Hebb은 가소성을 발달적 현상의 하나로 보았다. 이들은 발달이란 유전과 환경적 영향의 분리된 부산물이나 이들간의 단순한 상호작용 관계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유기체적 특성과 일생의 과정을 거쳐서 만나게 되는 특정한 경험들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보았다. 이들은 가소성 그 자체도 유전 혹은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유전과 환경의 수시로 변하며 역동적인 관계의 결과로, 가소성의 수준(정도)도 개체의 생의 과정을 통해서 획득되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가소성에 관한 다른 하나의 관점은 Brauth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이들은 가소성을 유전적 프로그램에 기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환경은 그 자체가 유전인자와 상호작용 하거나 융합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적 프로그램이 작동하도록 촉진시키거나 반대로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가소성에 대한 유전적 프로그램 관점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유전학 연구에서 지지 받고 있지 않은 것 같다(Lerner, 1998).

따라서 발달에 있어서 가소성을 개체와 환경체계들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는 관점은 앞으로의 연구에서 더 많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으며, 특히 아동발달 연구에서 체계적이고 맥락적 틀에서 발달의 과정을 추적하고 여기서 나타나는 개별 아동들의 변이를 설명하는 연구들이 요구되어질 것이다.

2) 연속성 대 비연속성

발달은 질적으로 서로 다른 비연속적인 단계를 거쳐서 일어난다고 보는 입장과 발달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양적인 변화로 연속성을 지닌다는 입장이 있다. Freud와 Piaget 등이 비연속성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단계론 자들이며, 사회학습이론가(Bandura)

와 정보처리 이론가들(Bjorkland, Klahr)은 연속성을 지지하고 있다. 현재는 과거와 달리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를 절충시켜 발달을 설명하려는 시도와 연속성과 비연속성의 어느 한 극단의 입장을 취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혹은 대상에 따라 연속성 혹은 비연속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Bjorklund, & Bjorklund, 1992; Krantz, 1994).

앞서 논의한 가소성의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발달에 있어서 연속성과 비연속성의 어느 입장을 취할 것인가는 더 이상 주된 관심사가 아닐 것이다. 오히려 관심은 주어진 시점에서 특정한 과정 혹은 기능에 있어서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발달적 체계들 속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패턴들을 알아내는 것이다. 연속성인가 비연속성인가는 절대적이지 않고, 변화의 특성으로 둘 다 나타날 수 있으며, 이 중 어떤 것이 실제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유기체와 맥락 내에 자리잡고 있는 발달적 조건들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Lerner, 1998).

이처럼 발달에 있어서 연속성과 비연속성의 공존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아동의 발달에 대한 접근이 맥락적이며 동시에 전생애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3) 유전 대 환경

아동의 발달적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한 이래 유전 대 환경의 논쟁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져 왔다. 이는 아동을 개체의 발달에서 능동적 역할을 하는 존재로 보는가 수동적 역할을 하는 존재로 보는가하는 연구 주제와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 발달에 대한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분리된 것으로 보기보다, 타고난 생물학적 특성인 유전과 가족, 학교 등과 같은 환경이 특정한 발달적 형태를 만들어내기 위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아동은 일방향적으로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발달의 영역에 따라서 아동의 능동적 역할의 정도가 달라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발달의 영역에 따라서 환경이 미치는 영향의 정도도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대부분 학자들의 관심 대상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유전과 환경이 상호작용하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분석의 대상은 아동과 관련된 다양한 조직들 속에서 나타나는 관계가 된다.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조직들이란 유전과 환경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개인 내적인 생물학적, 심리적 수준부터 가족과 같은 근접 사회수준, 교육정책이나 사회정책등을

포함한 사회문화수준, 그리고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생태환경을 다 포함한다. 이들 수준들은 서로 얽혀서 관계하고 있으며 양적이고 질적인 요소들도 이런 관계들의 특성을 형성하는데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발달적 분석의 대상은 단일 수준 단위가 아니라 수준들간의 연결상태인 관계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점은 유기체(유전)와 환경과의 시간적 조절이 중심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발달의 가변성은 개인의 유전자, 그가 속한 맥락, 그리고 유전자와 맥락의 상호관계의 시간적 조절에서 사람들마다 얼마나 차이가 나타나는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Elder, 1998; Lerner, 1998).

그러나 실제적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상호작용의 영향력과 과정을 밝히려는 시도는 적으며,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연구들조차도 이들을 분리 가능한 실체로 보고, 이들의 상대적인 영향을 밝히는데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유전과 환경의 주제에 있어서도 아동이 속해있는 다양한 수준들의 역동적인 관계를 알아보려는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4) 개인차

본격적인 아동연구가 시작되면서 많은 이론들은 앞다투어 단계를 제시하면서 이에 따른 발달적 연령을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도 Gesell의 성숙이론은 인간은 '발달적 시간표'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고 각 연령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행동발달 특성을 영역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발달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도 많이 일어났고 새로운 이론들도 많이 나타났으나 여전히 아동발달을 이야기 할 때는 규범적 연령을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은 1세가 되면 걸음마를 시작하고 첫 단어를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아동이 1세를 전후로 해서 걸음마를 시작한다. 하지만 개인차는 다양해서 어떤 아동은 9개월에 걷기 시작한다. 그리고 어떤 아동은 16개월이 지나야 겨우 한 걸음을 땔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개인차는 신체 발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모든 발달 측면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다.

앞에서 다루어진 가소성의 개념, 연속성과 비연속성의 공존, 유전과 환경의 역동적 상호작용 등을 고려해볼 때 아동발달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발달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핵심이 된다. 개인의 타고난 구조적, 기능적 특성들은 발달의

중요한 원천을 제공하고, 이런 개별성은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조직들과 융합하면서 개인들마다의 차이를 증진시키게 된다. 아동의 발달적 특성과 그가 속한 맥락 사이의 조화의 적합성(goodness of fit)의 정도는 발달적 변화에서 긍정적 결과와 부정적 결과의 개인차를 낳는 원천으로 작용한다(Baltes, Lindenberger, & Staudinger, 1998; Brandtstädter, 1998; Lerner, 1998. Thomas, 1985).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집단의 보편적 특이성을 밝히려는 시도보다 연구 대상들간의 개별적 특성과 맥락에 따른 차이점들을 밝히려는 시도들이 요구되진다. 현재 아동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들이 이점을 염두에 두고 개인차 발생의 속성을 알아내려고 하고 있으나, 아쉽게도 연구의 적용 현장에서는 여전히 아동들을 연령이나 집단의 테두리 속에 가두어서 설명하려고 하고 있다.

Ⅲ. 아동발달연구의 미래전망

1. 발달적 맥락주의의 출현

앞서 살펴 본 이론의 변화와 연구 주제의 변화를 종합해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맥락의 개념이다. 그리고 이런 맥락은 정지된 상태의 맥락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화해 가는 맥락을 뜻한다. 모든 인간발달의 연구가 그렇듯이 아동발달의 연구도 이제는 유기체인 아동이 살아 움직이는 맥락 속에서 역동적으로 관계를 주고 받으면서 이루어지는 발달적 경로와 발달적 현상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발달하는 개체와 그가 속한 변화하는 다양한 수준의 맥락들간의 변화하는 관계가 아동발달의 기본 과정을 형성한다는 생각(Lerner, 1991)이 발달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방향은 20세기말에 대두되었지만 앞으로의 새로운 세기에서 더 활발하게 자리잡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전망과 더불어 아동을 연구하는, 그리고 아동과 함께 일하는 이들에게 발달에 대한 포괄적 관점을 제시해주는 Lerner의 발달적 맥락주의는 당연히 주목을 끌게 된다. 발달적 체계적 관점을 띠는 이론 및 모델의 예는 발달적 행태학적 모델(Bronfenbrenner), 전생애적 관점(Baltes), 비교발달적 관점들(Gottlieb, Kuo, Tobach), 역동적 체계이론(Smith & Thelen), 그리고 발달적 맥락주의(Lerner)가 있다(Lerner, 1994). 이중에서도 발달적 맥락주의는 다양한 수준의 환경적 맥락들을 강조하는 체계론

적 속성과 전생애적으로 발달을 추적하는 발달적 속성을 통합하는 이론으로 미래의 아동발달 연구를 위한 대이론으로 받아들인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이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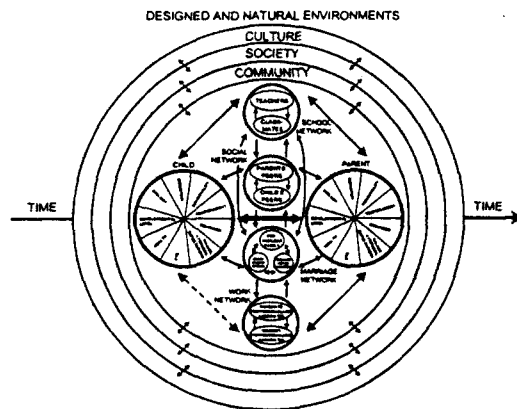
발달적 맥락주의의 주요개념들을 살펴보면, 우선 발달적 맥락주의는 인간의 삶의 성질을 형성하는데 관련되는 다양한 수준의 조직체(organization)들에 대해 통합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생물적, 심리적, 사회적 맥락들 속에서 일어나는 융합되고 변화하는 관계들이 발달적 변화의 과정을 일으킨다고 본다. 이러한 역동적 관계들은 인간행동 구조에 대한 틀을 제공해준다. 이에 덧붙여 이 체계는 역사적인 변화와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어 이런 일시성(temporality)도 인간의 삶에 하나의 변화 요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발달적 맥락주의의 세 가지 주제들에 대해 알아보면 먼저 아동은 자신의 발달에 대한 능동적인 생성자라는 것이다. 아동은 그 자체로써 자신이 속한 맥락들에 영향을 준다. 부모자녀관계를 생각해볼 때 자녀에 대한 부모의 반응 방식은 아동의 개별적 특성에 의해 많이 달라지게 된다. 자신들에게 영향을 주는 부모에게 영향을 줌으로써 아동들은 자신의 발달에 대한 원천들을 형성해나간다. 이와 같은 아동 영향(child effects)에는 아동의 개별성(예, 기질), 아동의 개별성의 결과로 부모에게 각기 다르게 주어지는 아동의 자극, 아동의 자극에 대한 부모의 반응, 아동에 대한 부모의 피드백이 속한다. 그리고 이런 역동적인 양방향 관계에서 조화의 적합성(goodness of fit)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 아동이 그를 둘러싼 맥락에서의 요구와 조화를 잘 이루면 적응적 결과가 나타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형태의 발달적 결과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주제는 발달은 전생애적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인간의 발달을 전생애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아동이 현재 어떤 발달 시기에 있는가, 그리고 이전에 어떤 경험을 가졌는가에 따라 이후의 행동과 반응은 달라지고 이는 또 그 다음의 발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부모의 이전 경험에 따라서도 발달적 결과는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순환적 기능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속에서 아동은 부모의 행동특성을 만들어나가고 부모는 아동의 행동특성을 만들어 가는 양방향적인 사회화를 이루어 낸다. 발달적 맥락주의에서 제안하는 마지막 주제는 생태학적 맥락에서

발달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과 가족이 존재하고 있는 실제 삶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개인, 가족, 부모의 직장, 복지제도, 탁아환경, 교육환경, 이웃공동체, 지역사회, 문화 등이 다 속하는 것으로 매우 다양하다.

이상에서 제시된 개념들을 Lerner(1995)는 다음과 같은 하나의 그림으로 요약하고 있다. Lerner가 제시하고 있는 모델은 상당히 복잡하다. 그러나 그는 이런 복잡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연구나 적용 그 어느 것도 타당하지 못하고, 개인이나 가족의 변화를 정당하게 평가하지 못할 것이며 기껏해야 오차변량으로 평균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변화를 분석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Lerner, 1994).



<그림 1> The developmental contextual view of human development (Lerner, 1995에서 인용)

2. 아동발달 연구의 도전과 과제

앞으로의 세기에서 필요로 하는 아동발달 연구는 무엇보다도 'real' 아동에 관한 연구이다. 아동이 현재 살고 있는 맥락속에서 아동과 맥락들과의 역동적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시간적 흐름의 차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와같은 발달적 체계 접근의 다체계들의 통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학문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아동의 발달 현상 설명은 더 이상 생물학적 지식이나 심리학적 지식만으로 부족하다. 사회학, 철학, 교육학 등 다른 학문과의 연계를 통해서 실제 있는 그대로의 아동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아동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동발달의 기본 과정- 개인과 맥락들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과정들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연구나 설명적 연구 모두 아동이 살고 있는 실제적인 생태학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설명적 연구는 원래 중재연구의 성질을 지니므로, 설명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의 역할은 인간과 맥락간의 관계의 변화가 “실제 세상”인 “자연적 실험실”에서 나타나는 발달적 궤도의 특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내는 것이고, 연구자들은 이를 정책과 프로그램에 소개해줄 수 있다(Lerner, 1998).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는 인간발달, 가족변화, 그리고 이들간의 상호적 관계의 대중적 경향을 알아내는 것과 동시에 다양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더 이상 포괄적인 발달 법칙이 우위를 차지하며, 보편성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은 유효하지 않을 것이다. 설령 그런 법칙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한 개인이나 집단의 삶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당하지 못할 것이다. 개별성을 강조하는 다양성 외에 개체를 둘러싼 맥락들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연구들도 필요하다. 즉, 개인과 맥락적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연구는 모든 인간의 삶의 과정을 이해하는데 유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연구에서 나온 정책과 프로그램 역시 모든 개체나 맥락에 적용할 수 있다거나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단일 변인으로 발달현상을 설명하거나 다수의 단일 변인들의 합만으로 발달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여기서 다양한 맥락들을 고려한다는 것은 변인들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의 관계들을 추적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정(process)과 경로를 밝히려는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발달의 다양성에 대한 추구는 자연스럽게 질적연구와 사례연구의 확장으로 이어지게 된다. 불과 얼마 전까지 아동발달 연구에서 질적 연구는 과학적 연구방법론이 아닌 것으로 취급받았다. 그 결과 아동발달 연구에서 다양한 연구방법의 적용은 제한되어 왔고, 여전히 조사법이나 실험법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세기의 연구에서는 융통성 있으며 질적 연구를 포함한 다양하면서도 정교한 연구방법들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미래의 연구에서는 발달적 체계접근에서 가정하고 있는 일시성(temporality)과 순환적 기능과 같은 개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전생애 관점을 과감하게 받아들여 연구에 적용해야 한다. 자료수집의 용이성과 경제성의 논리를 앞세워 일시적, 횡단적 연구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종단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연구들이야말로 아동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수립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IV. 맺는 말

본격적인 아동연구의 역사는 불과 100여 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론과 연구들이 쏟아져 나왔고 아동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도 많이 배출되었다. 20세기는 아동의 세기라고 지칭한 것이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현재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실제 세상(real world)은 어떠한가? 개별성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발달의 능동적 생성자로 아동을 보고 있는가? 적어도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더 이상 규범적이고 표준적인 인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도 여전히 규범적이고 표준적인 인간을 향해 아동들을 재촉하고 있다. 이보다 더 우려되는 점은 모든 아동이 효과적인 조기교육만 시키면 영재나 천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은 아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된다. 여태까지의 연구는 무엇을 위한 연구였는가? 연구를 위한 연구, 그리고 일반아동을 위한 연구라기보다 전문가를 위한 연구에 국한되지 않았나 싶다. 우리 나라의 겨우 연구의 결과가 교육현장이나 정책 혹은 중재프로그램 등에 적절하게 환류되는 예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앞에서 살펴본 이론과 연구 주제의 변화, 그리고 미래의 연구에 대한 제안점들을 종합해 볼 때 21세기에는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실제 아동의 삶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연구와 정책, 프로그램 등은 더 이상 분리된 것이 아니다. 연구의 결과를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연구의 시작에서부터 정책과 프로그램의 관점이 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문 영역간의 벽을 허물고 다양한 학문분야(아동발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생물학, 임상심리학 등)의 공동작업이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이밖에 발달적 맥락주의 같은 이론들에서 제기되는 매우 이상적인 가정들을 현실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아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맥락들을 포함시켜야 하고, 이는 단순한 포함이 아니라 이들 간의 역동적 관계를 알아내야 한다. 이에 덧붙여 시간적 변화에 따른 관계의 변이도 추적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가정들을 실제 연구에서 적용시키는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 자료의 수집에서부터 다양한 연구방법론의 적용이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자료의 분석에서도 세련되고 정교한 기법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도 역시 다학문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변화의 필요성과 요구에 아동발달학자들이 적절하게 대처할 때 아동을 연구하는 학문은 인간의 복지 증진을 위해 봉사하는 학문으로 21세기에 진정 자리 매김을 하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Baltes, P.B., Lindenberger, U., Staudinger, U.M.(1998). Life-span theory in developmental psychology. In W. Damon, & R. M. Lerner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pp. 1029-1143, New York: John wiley & Sons.
2. Bjorklund, D.F., Bjorklund, B.R.(1992). Looking at children: an introduction to child development Belmont, CA: Wadsworth.
3. Brandtstädter, J.(1998). Action perspectives on human development. In W. Damon, & R. M. Lerner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pp. 807-863, New York: John wiley & Sons.
4. Bronfenbrenner, U.(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5. Krantz, M.(1994). Child development: risk and opportunity. Belmont, CA: Wadsworth.
6. Lerner, R.M.(1991). Changing organism-context relations as the basic process of development: A developmental contextu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27:27-32.
7. Lerner, R.M.(1994). Developmental contextualism. In Greenberg, G. & Haraway, M. (Eds.) *Encyclopedia of comparative psychology*. New York: Garland Publishing.
8. Lerner, R.M., Castellino, D.R., Terry, P.a., Villarruel, F.A., McKinney, M.H. (1995). Developmental contextual perspective on parenting.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pp. 285-309, Mahwah, NJ: Erlbaum.
9. Lerner, R.M.(1998). Theories of human development: contemporary perspectives. In W. Damon, & R. M. Lerner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pp. 1-24, New York: John wiley & Sons.

10. Riegel, K.(1973). Dialectical operations : The final period of cognitive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16:346-370.
11. Thomas, R.M.(1985). Comparing theories of child development. Belmont, CA: Wadsworth.

미래 아동 발달에 관한 토론

김 경 희 (목포대학교 소비자아동주거학과)

인간의 일이란 스스로 믿고 실현하는 대로 이루어질 확률이 크다. 미래는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 창조되는 것이며 미래를 향한 비전과 선택에 의해 만들어 지는 것이다. 1984년에서부터 1990년 까지 약 6년 간의 아동 연구의 동향은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이론이 제시되었거나 새로운 연구 방향이 모색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단지 80년대 초반에 나타난 여러 연구가 축적되고 확대되어 가면서 종래의 방향이 보다 더 명확히 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1. 아동발달 이론

발표자께서 설명하신 아동 발달 연구의 역사적 흐름을 보면 이러한 맥락하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본 토론자는 발표자의 설명에 부연하여 20세기 초에 등장하여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아동 연구의 동향에서 보여지는 몇 가지 이론을 설명하고 싶다. 우선, 아동 연구에 정보처리 이론의 적용이다.

정보처리 이론은 전반적인 발달 연구에 영향을 미쳐 지각, 기억, 사고, 지능 및 문제 해결 등의 인지 발달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성 발달, 정서 발달 및 인성발달에서도 그 영향이 부각되었다(Bjorklund, 1989; Bretherton과 Walters, 1985; Lazarus, 1984). Klahr(1989)의 지적에 따르면 아동연구에서 정보처리 이론은 아동의 정신적 활동의 상징과 상징구조를 다루는 과정에 대한 연구분야에 적용되었고, 이 상징적 과정은 일정한 정보처리 체계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인지발달은 정보처리의 자기수정과정을 이루어진다고 한다.

둘째는 신 Piaget 학파인 Fischer(1980,1984)와 Case(1985)의 이론이다. 이들은 하위수준 개념을 통합함으로써 상위수준 개념이 형성된다는 생각을 기초로 하여, 발달은 매우 한정되고 부분적으로 분리된 개념으로부터 응집된 구조를 향해 정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보고 있다.

세째로 Vygotsky의 발달적-맥락적 개념으로 인간의 고등정신능력을 이해하기 위해

서는 그것의 근원과 그것이 거치는 변화과정을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Vygotsky의 이론을 기초로부터 Bronfenbrenner는 생태학적 인간발달 이론을 제시하였다. 그의 이론은 지속적으로 아동발달의 제 영역에 관한 연구는 개인적, 생태학적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발표자께서는 Lerner의 발달적 맥락주의가 다양한 수준의 환경적 맥락들을 강조하는 체계론적 속성과 전생애적으로 발달을 추적하는 발달적 속성을 통합하는 이론으로 미래의 아동연구를 위해 적합한 이론이라는 전제하에 발달적 맥락주의를 설명하였다. Lerner의 이론은 Vygotsky의 이론과 Bronfenbrenner의 이론은 통합하여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토론자는 이 이론이 앞으로의 미래 아동연구에 지속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는 발표자의 의견에 동의한다.

2. 미래 아동학의 방향

아동발달의 맥락은 시간 차원, 개인간, 개인내, 상위차원, 기질적 차원의 맥락들로 구분되며 이들 맥락들은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 따라서 어떤 사건이 아동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평가해야 하고 또한 무엇이,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어온 지금까지의 아동발달에 관한 연구는 서구의 이론들에 대해 보편성과 진리의 위치를 부여하여 이러한 보편성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처럼 기대되어지는 면이 없지 않았다. 그리고 서구에서 나온 이론과 개념, 방법론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아동을 대상으로 이론을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 왔고 또 학문적 권위를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새 천년에 주류를 이루게 될 아동발달의 맥락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서구사회의 이론을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 즉, 우리사회의 맥락에서 나온 이론과 개념, 방법론을 개발하여 이를 적용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근래에 들어 아동학계에서 학문의 자주성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으며 우리의 삶과 현실적 문제에 기초한 토착적인 이론화의 필요성이 주창되고 있다(정옥분, 1994).

발표자께서는 아동발달 연구가 실제 속에서의 역동적 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보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앞으로의 세기에서 필요로 하는 아동발달 연구는 무엇보다도 ‘real’ 아동에 관한 연구이다. 아동이 현재 살고 있는 맥락속에서 아동과 맥락들과의 역동적 관계를 살펴 보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시간적 흐름의 차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그 동안 아동발달연구의 대부분은 양적 연구에 역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남의 것을 가져다 우리에게 맞추려는 경향이 높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점차로 실제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아동발달에 관심이 증가하면서 아동발달연구의 동향은 양적 연구에서 질적연구로 변화되어가고 있으며 우리 것을 찾으려는 학계의 노력이 증가함에 따라 비교문화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간발달학의 범위는 전생애를 통해 인간행동의 본질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여러 시각들 가운데 비교문화적 방법이 전세계적인 맥락에서 개인의 평생발달의 다양한 범위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최근 아동발달에 관한 비교문화적 연구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연구결과들이 발표되면서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환경의 범위는 광범위하고 다양할 수 있다는 발견들이 나옴에 따라 미국 백인 중류계층의 양육환경이 최적의 조건이라는 연구 가정은 도전을 받고 있으며, 서구 중류계층의 생활방식을 가정하고 있는 발달이론들은 재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LeVine, 1990)도 제기되고 있다. 한 연구에서는 미국 백인 어머니들이, 소수민족집단이나 제3세계 국가 어머니들과 비교했을 때, 아기의 반응 및 활동주기에 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고 보고(Bornstein, 1991)한다. 한편, 미국의 저소득층 어머니들에게 조기개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할 때나 외출할 때 아기를 안거나 업을 수 있도록 띠를 나누어주었을 때 모의 반응성이 증가했고 모-자녀관계가 호전되었으며 아동학대가 줄어들었다는 연구결과(Hawood,1992)는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앞으로 아동발달의 제 영역에서 요구될 수 있는 과제는 우리의 독자적인 지식 체계 및 이론을 수립하여 학문적인 정체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를 세계무대에 소개하는 일이라고 본다. 인도와 일본, 중국 등에서는 이러한 활동들을 이미 적극적으로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한국적 아동발달

21세기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발달 및 무역장벽의 철폐로 지구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정보기술은 교육환경과 근로 환경, 그리고 가정환경, 더 나아가 사회체계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세계화를 위해 학자들은 새 천년을 향한 한국적 정체성을 수립하고 한국의 아동발달을 위한 미래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의 전통적 육아방식은 기본적으로 정서적 안정과 풍부한 인정의 배양을 추구하는 가운데 상호보완성과 균형성, 공동체 지향성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부모의 자녀에 대한 무한 책임의식과 더불어 자녀의 성취를 위해 헌신함으로써 부모의 도리를 다한다는 측면은 우리 문화의 핵심적 요소이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성취를 통해 부모를 명예롭게 하고 역사에 아름다운 이름을 남겨 가족공동체의 이름을 빛내며 궁극적으로는 더 큰 공동체에 봉사함으로써 자녀의 도리인 효를 다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아를 확장해 나가는 것, 즉 작은 개별적 자아에서 더 큰 자아로 나아가는 과정이며 이를 이룬 사람이 군자인 것이다. 그러나 서구문화와 접하면서 변모되어온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와 육아방식은 한국적인 면과 서구적인 면이 통합된 것이라기 보다 이중구조적인 양상으로 공존하고 있고 현실적응적 편의주의의 모습을 띠고 나타나면서 혼란상을 가중시켰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정교육의 부재,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 과잉교육열, 도덕 및 인성교육의 부재, 부모-자녀관계의 파괴 등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혼란상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전통문화의 단점인 권위주의, 부모의 희생적 역할, 무조건적 순응, 집단주의 등에 주목해서 우리가 가진 장점을 개발하지 못했다. 우리사회의 특성들은 개개인들에 대해서는 상황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고 성취를 향해 노력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여지며 민족공동체로 보면 우리 민족이 어려운 역사적 경험 속에서도 그를 극복해오는 바탕이 되었고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온 것들이다. 미래사회에서 우리가 가진 장점을 잘 살려서 풀어낼 수 있을 때 오히려 단점은 사라지고 새 천년의 바람직한 부모상과 아동상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우리 학문 공동체의 공동과제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새 천년의 아동학 연구는 발달적 맥락주의 이론이 주류를 이룰 것이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질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한국적 문화와 가치관이라는 거시 환경 내에서 성장하는 아동발달이라는 주제에 더욱더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전통적 부모상의 장점과 아동상의 장점을 더욱 개발하여 우리사회에 적절한 인간상을 형성시켜 나갈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정옥분(1994). 이제는 우리의 것을 찾을 때이다. 한국아동학회소식, 5, 1-2.
2. Bjorklund, D.F.(1989). Children' s thinking:Developmental function and individual difference. Belmont, California: wadsworth, inc.
3. Bornstein, M.H.(1991). Cultural approaches to parenting. New Jersey, Hillsdal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4. Bretherton, I., Walters, E.(1985).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5.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 and 2).
6. Case, R.(1985). Toward a Neo-Piagetian theory of affective and cognitive growth.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Toronto(OISE).
7. Fischer, K.W.(1980). A Theory of cognitive development: The control and construction of hierarchies of skill, Psychological Review, 87, 477-531.
8. Fischer, K.W., Pipp, S.L.(1984). Processes of cognitive development optimal level and skill acquisition. In R.J. Sternberg. Mechanisms of cognitive development. New York:w.H.Freemen.
9. Klahr, D.(1989). Information-Processing approaches, Annals of Child Development, Vol6,133-186.
10. Lazarus, R.S.(1984). On the primacy of cognition. American Psychologist, 39, 124-129.
11. LeVine, R.A., Miller, P.M.(1990). Commentary. Human Development, 33:73-80.